

광주,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폭 행보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행사에 지자체 유일 참석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점...전략적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2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및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석, 산·학·연·관 대표와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사장, AI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업 대표, 학교·연구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인 연계한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끈다는 목표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등 수요 연계형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기반 조성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종호 과기정통부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연간 16%씩 성장해 2026년에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의 절반 수준인 86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학교·연구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고속·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조성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성능

을 검증할 수 있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사업을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미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 서비스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실증 경험이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에 광주가 최적지이고 이미 함께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클라우드 사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 광주에서 수요 창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광주경찰청·의료기관과 정신응급대응 MOU 체결

광주시가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광주경찰청을 비롯한 국립나주병원·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김기정 시장은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용환 광주경찰청장,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 조은용 첨단종합병원장, 김상대 광주시립정신병원장, 김영철 광주제일병원장, 강승범 보은병원장과 함께 정신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응급입원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 ▲24시간 응급입원 요청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 ▲거점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상호 지원과 협력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민선8기 공약인 정신보건 자살중독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첨단종합병원·광주시립정신병원·광주제일병원 등을 거점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정신응급환자의 즉각 치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김기정 시장은 "그동안 시는 정신응급 대응에서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직접 협약의 당사자가 돼 여러 공공·민간 의료기관, 광주경찰청 등과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신응급 대응체계는 환자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인권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촘촘하게 협력해 환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청년 일경험드림

플러스사업 수탁기관 공모

광주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이 본인 직무 적성에 맞는 사업장을 선택, 5개월간 주 25시간의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6년 동안 12기의 사업을 진행해 5000명 이상의 지역 청년에게 지역 사회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수탁기관 공모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하며, 13기 참여 사업장과 참여 청년 총 920명을 모집한다.

이번 수탁기관 공모에서는 해당 사업의 통합지원기관과 5개 유형별 수행기관(공공기관형·기업형·사회복지형·사회적가치형·청년창업기업형) 각 1곳 씩 총 6곳을 모집한다. 사업 관리와 운영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1년이다.

통합지원기관은 ▲유형별 수행기관 통합 지원 ▲사업 모니터링과 정책 연구 ▲공통교육과 사업 홍보 등을 수행한다. 유형별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사업장 모집과 선발 ▲사업 참여 청년 모집과 선발 ▲참여자 급여 지급 ▲유형별 직무 교육 진행 등을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광주지역 내 위치하고, 국가기관 취업지원 등 분야에서 사업 위탁 운영 실적이 있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2022년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 전라도는 12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2022년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 주도형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굳건히 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 제공

도민불편 해결사...전남 민원메신저들, 올해 732건 최다 제보

성과보고회...도민 주도형 소통채널 강화 다짐

전남도 민원메신저들이 올해 역대 최다 제보를 통해 도민 불편 최다 해소 성과를 가졌다.

전남도는 12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2022년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 주도형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굳건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과 민원메신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민원메신저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우수 민원메신저 시상, 민원메신저 활동 지원 시·군 우수 공무원 표창, 제11기 민원메신저 임원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민원메신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역대 최다인 732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 체계적인 관리’, ‘스물존 주차장 문제’ 해결 등을 이끌었다. /박종배 기자

또 ‘온실가스 저감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도민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했다.

유공자 표창에선 활발한 활동으로 정책 제안과 도민불편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순천시 광승찬 민원메신저 등 12명이 도시자 표창을 받았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강진군 민원봉사과 박경진 주무관 등 3명도 표창을 수상했다. /박종배 기자

“긴급생활지원금 연말까지 안쓰면 자동 소멸”

광주시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카드를 오는 31일까지 사용하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등 총 6만8000여 가구에 317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달 8일 기준 긴급생활지원금 카드 지급액 대비 이용액 비율은 97%로 높은 편이지만, 카드 수령가구 중 일부 가구는 아직까지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유휴·향락·사행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형마트 등 광주지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오는 31일 이후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카드 수령가구에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지원금 전액을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신발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아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시민은 기한 내 꼭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2023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 용자

전남도, 연리 1%...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는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0억 원의 연리 1% 저리로 용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용자를 바라는 친환경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와 지원자금은 서류·현지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1월 말 최종 확정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로 개인은 1억원, 법인 5억원, 유통업체는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지원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박종배 기자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부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저작권 상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실무상담 지원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SW사용 실태진단 및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산업현장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QR코드로 신청 바로가기!






문의 : 061-280-7493 / pjy@jcia.or.kr